스사키지 절

무레에 있는 스사키지 절은 진언종(眞言宗)의 창시자인 승려 구카이(774~835)가 9 세기 초엽에 창건했다고 하는 사원입니다. 이 절은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의 큰 전투인 야시마 전투(1185 년)로 절정에 달한 겐페이 전투(1180 년~1185 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투 중 부상한 미나모토 가문의 병사는 스사키지 절로 보내졌습니다. 스사키지 절은 이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재건과 파괴가 반복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699 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스사키지 절은 유명한 시코쿠 순례의 88 성지 가운데 하나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번외 성지'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토의 정원 디자이너 후지이 미노루 씨가 설계하여 2013 년에 완성한 가레산스이 정원은 야시마 전투의 전장을 조감하듯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바위와 이끼의 집합체는 각각 야시마의 대지(臺地)와 고켄잔 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라 가문이 배를 감추고 미나모토 가문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던 만(灣) 등, 이 지역에는 외딴 만이 많음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형상이 세심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